

# 전남동계체전 '역대최고성적' 뒤 숨은 조력자들

##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 현장지원 통해 우수성적 거양 '화제' 바이애슬론 메달 싸움이 등 효과만점... "전남 체육에 큰 힘"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현장지원이 힘입은 전남체육이 동계분포지임에도 불구하고 역대최고성적을 거양함으로써 연일 화제다.

특히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의 현장지원 및 컨디션닝 지원을 등에 업은 바이애슬론 팀이 제103회 동계체전에서 메달을 싸움이 하며 역대최고성적 거양에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일원에서 전남바이애슬론 선수단을 집중케어 한 결과, 총 메달(금 6개·동 1개)을 획득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는 경기 전 심리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자신감을 상승과 마사지 및 테이핑을 통해 대회를 앞두고 훈련으로 인한

근육 피로를 최소화시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 엄청난 체력소모로 인해 근육의 피로가 많이 쌓이는데 산소처리를 통하여 체내 산소포화도를 증가시켜 선수들의 피로 및 근육회복속도를 가속화했다.

한편,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의 현장지원은 이외에도 많다.

지난 제48회 전국소년체전, 전남wfc, 제102회 전국체전에서도 전남선수단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 김태완 센터장은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가 선수들의 체력 측정 및 과학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처방뿐만 아니라, 현장지원을 통해서 전라남도 선수들이 우수성적을 거양하는데 도움이 되어 매우 기쁘다"며



산소치로 측정 중이며 컨디션닝체크

"앞으로 더 많은 종목, 선수들에게 현장지원을 통해 전남체육에 큰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의 컨디션닝 프로그램

과 트레이닝 도구 대어는 전남스포츠과학센터 (061-288-1390)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환기자

## 지소연 79분 활약 첼시 리그컵 준우승

지소연의 소속팀인 첼시 위민이 올 시즌 첫 우승컵 도전에 나섰다. 맨체스터 시티 위민에 역전패했다.

첼시 위민은 6일(한국시간) 영국 웹스턴 플라우 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 잉글랜드 축구협회(FA) 여자 리그컵 결승전에서 전반 선제공격을 지켜내지 못하고 후반에만 3골을 내줘 맨시티 위민에 1-3으로 졌다.

지난 2019~20 시즌 첫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던 첼시 위민은 지난 시즌에 이어 세 시즌 연속 정상에 도전했지만 수비가 무너지면서 맨시티 위민에 우승컵을 내줬다. 반면 맨시티 위민은 지난 2018~19 시즌 이후 3년만에 정상에 오르며 통산 4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날 지소연은 선발 미드필더로 나서 79분을 소화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전반 34분 최전방 공격수 샘 커의 선제공격 앞서갔지만 후반 들어 연속 3골을 내줬다. 후반 4분만에 케틀라인 위어에게 동점골을 내준 첼시 위민은 후반 13분 로렌 험프의 슈팅을 골키퍼 앤드루 베르거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이 엘렌 화이트가 밀어넣으며 1-2 역전을 허용했다.

후반 24분에도 첼시 위민의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위어에게 추가골까지 허용하고 말았다.

첼시 위민은 후반 23분 니암 찰스 대신 로렌 제임스를 투입하며 공격을 더 강화해봤지만 승부를 되돌리지 못했다. 후반 34분에는 지소연까지 빼고 베티니 잉글랜드까지 넣으며 공격진을 더 강화했지만 맨시티 위민의 수비를 끝내 놓지 못했다.

뉴시스



신익현이 6일 중국 장자커우 국립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좌식 18km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진 =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 '평창 영웅' 신익현, 또 메달 불발... 크로스컨트리 18km 8위

'평창 영웅' 신익현(42·창성건설)이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 두 번째 레이스에서도 메달을 놓쳤다.

신익현은 6일 중국 장자커우 국립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좌식 18km에서 49분26초2를 기록, 출전 선수 25명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전날 이번 대회 첫 레이스였던 바이애슬론 남자 스프린트 좌식 6km에서 12위에 머물렀던 신익현은 이날도 입상이 불발됐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세계적인 강자로 꼽히는 신익현은 올해 1월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열린 장애인 노르딕스키 세계선수권대회 크로스컨트리 18km에서 은메달을 따며 기대를 부풀렸지만, 고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3km의 코스를 6바퀴 도는 이날 경기에서 신익현은 3km 지점을 5위로 통과했지만, 3~6km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며 8위로 밀렸다. 8.6km 지점 통과 기록은 9위까지 떨어졌다.

신익현은 이를 악물었다. 15km 지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한 신익현은 16km 지점을 6위의 기록으로 통과했다.

하지만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순위가 더욱 밀리고 말았다. 동계패럴림픽 2회 연속 메달을 향한 신익현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신익현은 8일 오전 11시(한국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바이애슬론 남자 좌식 10km에 출격한다. 처음 동계패럴림픽에 나선 정재석(35·창성건설)은 58분19초6의 기록으로 22위에 자리했다. 금, 은메달은 중국이 휩쓸었다. 정평이 43분09초2로 1위, 마오중우가 43분23초8로 2위에 올랐다. 캐나다의 롤린 캐머런이 47분36초6으로 동메달을 가져갔다.

중국을 이번 대회 노르딕스키에서 메달을 휩쓸고 있다. 크로스컨트리 남자 좌식 18km 금, 은메달을 포함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이슬비기자

## 전남드래곤즈, 빛나는 K리그 레전드 최효진 은퇴식

### 2005년 인천서 데뷔... 개인 통산 416경기 출전 23골 30도움



K리그 통산 416경기에 빛나는 레전드 최효진이 은퇴식을 했다.

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22 3라운드 전남과 충남아산 경기에서 최효진의 은퇴식이 진행됐다.

2021시즌 플레이 코치를 선언하며 후배들과 함께 2021 하나은행 FA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선수의 마지막을 장식한 최효진은 올해 초 개인 SNS를 통해 은퇴 선언하였고 현재 전남의 코치로 활동을 하는 중이다.

최효진은 2005년 인천에서 프로에 데뷔해 포항, 서울, 상주상무, 전남 등을 거치며 개인 통산 K리그 416경기에 출전 23골 30도움을 기록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 황희찬 3개월만에 풀타임, 울버햄튼 3연패 수렁 미드필드에서 밀리면서 좀처럼 공격기회 못 잡아... 0-2 완패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오른쪽)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나다니엘 클라인이 6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튼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EPL 경기에서 볼 다툼을 하고 있다.

황희찬이 3개월만에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소속팀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3연패 수렁에 빠졌다.

울버햄튼은 6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튼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 2021~2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홈경기에서 0-2로 졌다.

울버햄튼은 이날 패배로 EPL 3연패 늪에 빠지며 12승 4무 11패(승점 40)로 토트넘 핫스파(13승 3무 9패, 승점 42)에 뒤진 8위에 머물렀다.

황희찬은 지난달 25일 아스날전 이후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섰다. 페드로 네투, 다니엘 포덴스와 함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황희찬은 지난해 11월 28일 노리치와 경기 이후 3개월만에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황희찬을 비롯한 최전방 공격수들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미드필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밀리면서 좀처럼 공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2개의 슈팅 가운데 포덴스가 3개에 그쳤고 황희찬은 하나에 머물렀다. 오히려 미드필드에서 슈팅이 많이 나올 정도로 공격이 효율적이지 않았다.

## 정우영 교체출전 25분, 프라이부르크 무승부

정우영이 교체로 나서 25분 가량 뛰었지만 프라이부르크는 막판 통탄의 동점골을 허용하며 상위권으로 도약하지 못했다.

프라이부르크는 5일(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 레드 불 아레나에서 열린 RB 라이프치히와 2021~22 독일 분데스리가 원정경기에서 전반 38분 에르메인 데미로비치의 선제공격으로 수비를 눈앞에 뚫지만 후반 45분 도미니크 소보슬라이의 패스를 받은 호세 앙헬 앙헬리노에게 동점골을 내줘 1-1로 비겼다.

프라이부르크는 이날 무승부로 11승 8무 6패(승점 41)로 RB 라이프치히(12승 5무 8패, 승점 41)에 골독실에서 뒤진 5위가 됐다. 아인트호벤(12승 4무 8패, 승점 40)이 FC 쾰른과

원정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6위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프라이부르크가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내줘 승점 3을 가져가지 못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밀렸다. 이날 슈팅은 4-14로 절대 열세였고 볼 점유율에서도 28-72로 크게 뒤졌다.

그러나 프라이부르크는 선제골을 넣은 데미로비치를 중심으로 라이프치히 수비진을 위협했고 스트라이크 수비수 역시 라이프치히의 파상공세를 동점골을 내주기 전까지 잘 막아냈다.

정우영은 후반 20분 빈센조 그리포 대신 교체 투입, 공격에 나섰다. 슈팅을 기록하지 못한 한 경기로 마쳤다.

뉴시스



## KIA "즉시 전력, 멘탈 강해 좋다" 불펜 난제 해결... 좌완 셋별 급부상

KIA 타이거즈가 스프링캠프에서 귀중한 원석을 발견했다. 좌완 기근에 시달리는 불펜에 단비 같은 투수가 등장했다. 2022 2차 1번으로 낙점한 좌완 투기 최지민(19)이 주인공이다. 김종국 감독이 "즉시 전력강하다.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큰 자원이야"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최지민은 신인투수로 스프링캠프 1군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동계경쟁투와 함께였다. 캠프의 숙제 가운데 하나는 좌완 불펜 요원 만들기였다. 이준영 한 명 뿐이었다. 하준영은 나성범의 보상선수 NC 다이노스에서 데려왔다. 잘못하다간 이준영 한 명으로 불펜 살림을 꾸려나갈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지민은 캠프 초반 불펜 피칭할 때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불펜피칭을 거듭하고 라이브와 실전을 소화하면서 존재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실전에서는 타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불을 던졌다. 구속은 최고 140km 정도이지만 볼끝과 제구가 남달랐다. 연습경기에서 두 번 등판해 10타자를 상대로 2피안타 4탈삼진을 기록했다.

원손투수로 불을 최대한 감추고 던지는 스타일이다. 갑자기 불이 나타나는 느낌이 들어 공략이 쉽지 않은 것이다. 타자들의 몸쪽 바깥 던지는 직구도 일품이었다. 변화구 주무기인 슬라이더의 궤적이 날카로워졌다. 양현종에게서 체인지업도 배워서 부지런히 연마하고 있다.

이준영과 함께 두 명의 원손 셋업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강릉고의 에이스로 실전경험이 많다. 마운드에서 주눅들지 않는 배짱과 자신감도 큰 무기이다. 좌타자 스페셜리스트로는 안성맞춤이다. 실전에서 경쟁력을 보여주자 김종국 감독과 서재용 코치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종국 감독은 "가능성이 있다. 던지는 요령이 있다. 고교 에이스로 많이 던져서 그런지 요령이 보인다. 폼도 좋고 구위도 생각보다 괜찮다. 캠프 초반에 비해 구위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투수코치도 그렇고 1군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좋게 보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슬비기자